



「청렴-충복교육」

청 렴 편 치



충청북도교육청

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복교육!

감사관 2018 - 7호
발행일: 2018. 7.

“이항복을 통해 본 역사 속 청렴 이야기”

조선시대 중기 문신인 이항복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성’은 그의 호가 아니며, 백사(白沙)가 호입니다. 백사는 호처럼 흰 모래같이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항복은 병조판서를 5차례 역임하고, 일등공신으로서 ‘오성부원군’이라는 군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에 맞지 않게 셋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높은 명예와 지위, 출세를 모두 얻은 인물이 이처럼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가히 청백리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항복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항복이 지방으로 내려간 뒤, 당시 조정에서는 이항복에게 그 지역 반역의 낌새에 대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항복은 “역적은 날짐승, 들짐승이나 물고기처럼 특산품이 아니라서 찾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이항복이 의금부에서 역모 조사에 참여할 때 이춘복이라는 역적을 잡아 오라고 시켰는데, 이춘복이 없어 이원복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사람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 놈이 그 놈이니 별을 쥐야겠다는 결론이 나는 듯하자 이항복은, 자신의 이름도 비슷하니 자신부터 별을 받아야겠다 말하였고, 이로써 이원복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처럼 공정하며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청렴입니다. 청렴한 태도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덕망을 쌓아 재물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을 용인하지 않는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합니다.

2018. 7.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 이 해진



「청렴-충북교육」

청암 편지



서울대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감사관 2018 - 7 호
발행일: 2018. 7.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근 우리 사회는 갑질행위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쌍두마차인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땅콩 회항 사건’ 및 ‘물벼락 사건’ 등 갑질 행위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및 그룹 회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승객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의전에만 신경을 쓴 갑질행위로 인해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행위는 비단 대기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갑질 행위로 인하여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로 국방부와 경찰청의 한 상사는 군복무 사병을 불러다 텃밭나물을 채취하도록 시키고 대학원 숙제를 대신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민간조합 임원에게 사적으로 압력을 넣어 연찬회 및 골프비용을 대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고질적이고 악습적인 갑질행위가 횡행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러한 이유에는 수직 계열화된 서열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교 도덕 사상의 근간이 되는 다섯 가지 덕목 중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가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듯한 사상이 아랫 사람은 무조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마구 대해도 된다는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었고, 또한 서열을 매기는 중심에는 권력이나 돈 등 사회적 지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갑질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즉, 공무원 행동 강령에 ‘갑질 조항’을 신설하고, 중대한 갑질 공무원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및 예방 교육을 통해 갑질행태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정적인 관계가 아닌 ‘갑’도 ‘을’을 인간 자체로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을’ 역시 ‘갑’을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대우해줄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갑질행태 근절을 통해 행복한 교육 실현이 되길 바랍니다.

2018. 7.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청렴-충북교육」

청 렴 편 카



충청북도교육청

산수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감사관 2018 - 7호

발행일: 2018. 7.

“변화의 시작은 청렴을 실천하는 당신입니다”

청렴한 옛 선인 또는 현세대 공직자의 청렴 실천 에피소드를 듣고 복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던 경험이 있진 않나요? 아래는 1,000회가 넘는 강의 중에 단 한 번도 눈물과 손수건, 휴지를 보지 못한 강의가 없다던 어느 청렴강사님의 강의 일화입니다.

모 정부 산하연구원의 연구원들(전부 박사학위 소지) 6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원장님은 나이가 많은 여성분(박사학위 소지)이었고 제일 앞줄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니까 원장님은 청렴교육이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듯 하면서 강의와 관계없는 유인물을 꺼내들고 보고 있었는데, 10분쯤 지나니까 고개를 들고 강사를 응시하면서 열심히 청강을 하고 있더니 이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 시작하였으며, 강의가 끝날 때까지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고 있었고, 강의가 끝나고 헤어질 때는 목이매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무언의 인사만하고 헤어졌는데 ‘이런 기관장이 계시는 곳에서는 비리와 관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렴강사의 필수조건인 ‘자신이 청렴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강사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옛 선인들의 역사 속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세대 인물의 예는 실감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사 본인의 대쪽 같은 청렴한 경험담이라면 듣는 상대방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고, 비극을 보고 느끼는 카타르시스와는 다르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형태로 정화(淨化)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비리에 쉽게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다산의 발자취를 쫓아 나선 강진에서의 청렴강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반 1등에게 청소당번을 시키는 담임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유가 하도 궁금하여 선생님께 여쭤보니 “청소는 주변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게 하는 심신을 수양하는 신성한 행위인데 당연히 공부를 잘한 학생에게 칭찬의 의미로 청소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강사님은 이후에 군대에서는 후임병에게, 직장에서는 선생님이 되어 제자에게, 결혼한 후에는 자식에게 칭찬과 함께 상을 주는 의미로 청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는 모든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청렴한 성품과 행실에 감화(感化)된 상대방이 청렴을 생활화하여 다른 누군가를 감화시키는 것... 변화의 시작은 바로 청렴을 실천하는 여러분입니다.

2018. 7.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주무관

기 | 2018 | 후